



朴 昌 根  
〈本会고문·環境教育会회장〉

# 공짜물과 임살정책

물론, 지금은 웬만한 도시가정에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더운물과 찬물이 나오지만 한 10여년 전만해도 주부들의 소박한 소망은, 더운물과 찬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였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내가 뉴욕에 와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아무 수도꼭지나 틀어도 더운물과 찬물이 콧물 쏟아져 나오는 현실이었다.

가정의 수도꼭지는 물론, 일반 빌딩과 공공장소, 심지어는 공원의 공중변소의 수도에서도 꼭지만 틀면 더운물, 찬물이 나온다. 이런 좋은 물이 나를 또한번 놀라게 하는 것은 모두 공짜라는 사실이다. 즉, 가정이건 어디건 수도물값을 물지 않는 100% 공짜의 물이 더운물, 찬물 가릴것 없이 쓸 수 있다는 뉴욕에서, 나는 웬지 서러워졌다.

그 옛날, 추운겨울 어머니께서는 내가 찬물로 세수하는 것이 안스러워 제일 먼저 더운물부터 준비하시던 기억, 그후 결혼을 하고서도 그럴듯한 보일러가 없는 집에서 사는 내 형편때문에, 아내는 늘 털장갑에 고무장갑을 끼운 손으로 빨래하라, 설겅이하라 애쓰던 모습들이 아무곳에서나 수도꼭지만 틀면 더운물, 찬물이 콧물 쏟아져 나오는 뉴욕에서, 나는 서글퍼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환경오염의 첫번째 조건이 뭐니뭐니 해도, 대량소비에 있다고…… 또, 수질오염의 경우 일단 한번 쓴 물은 다시 재생해야 한다는 사실때문에, 덜쓰고 아껴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오던 한국에서의 일…… 그래서 '78년엔 서울시와 함께, 하수도세를 기초해 쓰는 물값만 아니라 버리는 물값도 물려, 물을 덜쓰고



▲ Don't Drip New York Dry : 폐수를 막읍시다. 뉴욕(사과)이 마르고 있습니다.

아껴쓰도록 권유했었다. 그뿐인가? 권숙표박사님의 아이디어대로, 우리집은 물론 친구네 집이건, 공중변소 이건 간에, 닥치는대로 변기의 물탱크속의 플라스틱볼을 하향조정하기를 권고하고 홍보하던 날이 몇년이었던가? 심지어는 부근에서 벽돌을 주어다가 물탱크속에 모래를 넣어 그만큼 물차는 양을 줄이기에 애썼었고…… 집안식구건, 친구네집 애들이건 간에, 꼭지를 틀어놓고 양치질이나 세수하는 것을 보면, 야단치던 일들…… 그런 모든 물 아끼기의 내 극성은, 이곳 뉴욕에서 한낱 가난한 나라 백성의 줌스러운 일이 되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물이 얼마나 많기에, 또 물덥히는 에너지가 얼마나 풍요하기에, 전국의 더운물, 찬물이 모두 공짜란 말인가? 그래서, 길거리를 물로 쓸어내고, 밤새도록 분수를 틀어놓고, 머리만을 감는데도 샤워를 틀어놓고, 한 시간씩 노닥거리고, 심지어는 욕실의 샤워도 맛사지 샤워꼭지를 달아놓고 폭포수를 맞는 기분을 내고 있다.

이렇게 물을 풍요롭게 쓰면서도, 폐수를 걱정하는 곳이 뉴욕이다. 뉴욕의 변화가인 맨하탄, 브로드웨이 곳곳과, 뉴욕시 전역의 지하철에는 물끼가 빠져 말라비틀어진 사과 한개나, 싱싱한 사과로부터 점점 말라가는 사

과의 과정을 4개의 사진으로 나타낸 폐수 걱정 포스타가 붙어있다. 포스타의 문구는 “WATCH DRY” 즉, “건조를 막자”고 할까? 가뭄을 대비하자고 할까? 하여간 그런 걱정을 앞세우고 있다. 뉴욕의 상징이 「사과」(apple)라고 볼때, 매우 함축성있는 아이디어다. 그리고 포스타의 아래에는 “폐수를 막읍시다”라고 권유하고 있다. 말하자면, 물은 많이 쓰더라도 폐수는 막아보자는 생각같은데, 글썄 물량이 쓰는것 자체가 폐수생산인데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말, 폐수를 걱정한다면 그만큼 물을 덜쓰고, 아껴써야 하겠는데 물은 많이 쓰면서 폐수를 걱정한다니, 이윤배반이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하여간 뉴욕은 물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물로 시작해서 물로 마감하는 물 천지다. 쓰는 물값도 버리는 물값(하수도세)도 아까워 한 바가지의 물도 아껴쓰는 우리네 입장으로는 이곳 뉴욕의 공짜 물사용은 부럽기보다 웬지 안타까워 보이니… 한낱 가난한 나라의 백성이 갖는 줌스러운인가? 아니면, 환경보호 그 하나로 사는 사람의 노파심인가?

(1988. 6. 14 뉴욕에서)